어휘력 자신감

초등 국어

6단계

정답과 해설

1주차 Day 01

본문 8쪽

1 (1) × (2) ○ (3) ○
2 (1) ②, ④ (2) ①, ③
3 (1) 먹이 (2) 효성 **4** 재이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② (2) ① (3) ③
6 (1) 효성 (2) 위협 (3) 고분
7 (1) 흉 (2) 길조
8 (1) 알맹이 (2) 나무랐다 (3) 날아가는
9 (1) ② ○ (2) ② ○
10 (1) ① (2) ② (3) ①

1 (1) 까마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옛날에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겼습니다.

2 견우와 직녀를 위해 다리를 만든 이야기나 고구려 고분 벽화에 까마귀가 그려진 것을 통해 옛날에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반포지효'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입니다.

4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라는 속담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나무라는 말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재이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습성'은 '같은 종류의 동물에서 공통되는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뜻하고,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합니다. '후손'은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6 (1) '효성'은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정성.'을 뜻하고, (2) '위협'은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이라는 뜻입니다. (3) '고분'은 '옛날에 만들어진 무덤.'을 뜻합니다.

7 '길하다'와 '흉하다'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이 두 낱말의 관계를 살펴보면, 좋은 일을 가져온다고 여기는 새를 가리키는 '길조'가 '흉조'와 뜻이 반대되는 낱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알맹이', '나무라다'가 알맞은 표기입니다. '날아가다'는 '날다'와 '가다'를 합해서 만든 낱말입니다. '날다'는 '날고', '날아', '날았다'와 같이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날라가다'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9 '다리'와 '차다'는 글자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형어'입니다. (1) ①의 '다리'는 '다리에 쥐가 났다.'와 같은 문장에 쓸 수 있습니다. (2) ①의 '차다'는 '물이 너무 차서 이가 시렸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10 받침 'ㄺ'은 낱말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지만 'ㄱ' 앞에서만 [ㄹ]로 발음합니다.

1주차 Day 02

본문 12쪽

1 ㉡
2 (1) 존경 (2) 고백 (3) 사냥
3 (1) ① (2) ②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② (2) ① (3) ③
5 (1) 허투루 (2) 야생
6 (1) ○
7 (1) ○
8 (1) 안 갔다 (2) 안 다쳤다 (3) 안 떠올랐다
9 (1) 도저히 (2) 영원히 (3) 속속들이
10 (1) 출 줄 (2) 것 같아 (3) 그럴 수

1 ㉠, ㉢, ㉣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은 이 글과 다른 내용입니다. 잎싹은 청둥오리에게 알에 대한 비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생각이었으나 청둥오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임을 깨달았고 결국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2 청둥오리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려던 잎싹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청둥오리는 족제비가 사냥하기 전에 내일은 알이 깼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며 멀어졌습니다.

3 잎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봐 준 친구를 속여 왔던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실대로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글의 마지막에 지쳤다고 말하며 찔레 덤불에서 멀어지는 청둥오리를 보며 불안해하는 잎싹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돋다'는 '살갗에 어떤 것이 우툴두툴하게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2) '멎다'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다.'라는 뜻이고, (3) '고백하다'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6 (1)~(3) 모두 '입'과 관련된 관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는 '입을 씻다', (3)은 '입을 막다'의 뜻입니다.

7 앞에 '예수님'이라는 낱말이 있으므로 밑줄 친 '탄생'은 '사람이 태어남'을 뜻합니다.

8 '않다'는 '어떤 행동을 안 하다.'라는 뜻으로, 형태가 바뀌는 말 뒤에 붙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안'을 낱말 앞에 쓰면 '않다'가 붙은 문장을 짧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은 '가다'의 앞에 '안'을 붙여 '안 갔다'로, (2)는 '다치다' 앞에 '안'을 붙여 '안 다쳤다'로, (3)은 '떠오르다' 앞에 '안'을 붙여 '안 떠올랐다'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9 '도저히', '영원히', '속속들이'가 알맞은 표현입니다.

10 '줄', '것', '수'는 혼자서는 쓸 수 없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들은 앞에 오는 다른 낱말과 함께 써야 하고, 쓸 때에는 띄어 써야 합니다.

1주차

Day 03

본문 16쪽

1 ③
2 ㉠
3 (1) ○
4 새기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③ (2) ② (3) ①
6 (1) 경계 (2) 명심 (3) 겸손
7 (4) ○
8 (1) 잘난 체 (2) 한쪽 (3) 책 중에서
9 (1) 가르쳐 (2) 가리키고 (3) 가르치고
10 (1) 어떻게 (2) 낡은 (3) 기울어져

1 공자의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글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나폴레옹과 율곡 이이는 좌우명을 만들고 실천한 인물입니다. 제자들은 공자가 기울어진 술독에 물을 채우라고 한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3 공자는 요술 술독을 신기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공부를 다 했다고 겸손함을 잊고 잘난 체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 명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공자는 학문이 깊을수록 잘난 체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 '좌우명'에 쓰인 '명'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사당'은 옛 위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의 나무패를 모셔 두는 집을 뜻하고, (2) '이치'는 도리에 맞는 원리, 근본이 되는 목적 등을 뜻하고, (3) '좌우명'은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를 뜻합니다.

6 (1) '경계하다'는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2) '명심하다'는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 두다.'를 뜻합니다. (3) '겸손하다'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7 보기 의 '새기다'는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1)은 '글씨나 형상을 파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2)와 (3)은 '적거나 인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8 (1) 꾸며 주는 말 '잘난'은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씁니다. (2) '한쪽'은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이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3) '책'과 '중'은 각각의 낱말이므로 띄어 씁니다.

9 '가르치다'는 모르는 것을 알려 줄 때 쓰는 낱말입니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말하는 '가리키다'와 헷갈리거나 '가르키다', '알으키다'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0 형태가 바뀌는 낱말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어떤 낱말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가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1주차

Day 04

본문 20쪽

1 (1) ○ (2) × (3) ○
2 (1) 독재 (2) 조작 (3) 시위 (4) 주권
3 우영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① (2) ② (3) ③
5 (1) 동원 (2) 진압 (3) 방해 (4) 저항
6 정의
7 (1) ② (2) ②
8 (1) 첫∨번째 (2) 더∨이상은 (3) 하고∨싶어서
9 (1) 며칠 (2) 오랫동안 (3) 맞서고

1 (2)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를 끝내려고 일어난 시위입니다.

2 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부정 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통해 주권을 되찾은 것이 4.19 혁명입니다.

3 '주권'은 국가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영수가 말한 내용은 '독재 정치'의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이념'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의견.',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뜻합니다. '혁명'의 뜻은 '국가나 사회의 제도와 조직 등을 새롭게 고치는 일.'입니다.

6 '정의'와 '불의'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불의'의 '불' 자는 '아니다', '못하다'라는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 일부 한자에 '불(不)' 자를 붙이면 뜻이 반대되는 낱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일어나다'와 '찍다'는 하나의 낱말이 두 개 이상의 관련된 뜻을 가지는 '다의어'입니다. 다의어는 문맥에 따라 뜻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낱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 알맞은 뜻을 찾습니다. (1)의 '일어나다'는 '발생하다'와 비슷한 뜻이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와 같이 써야 ①의 뜻이 됩니다. (2)의 '찍다'는 '뽑다'와 비슷한 뜻이며, '사진을 찍다'와 같이 써야 ①의 뜻이 됩니다.

8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어 씁니다. (1) '첫'은 '맨 처음의.'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고, '번째'는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2) '더'는 '계속하여. 또는 그 위에 보태어.', '이상'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이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3) '하다'와 '싶다'는 각각의 낱말이므로 띄어 씁니다.

9 (1) '며칠'은 소리 나는 대로 써야 알맞습니다. (2) 낱말 사이에 'ㅅ'이 있는 '오랫동안'이 알맞은 표현입니다. (3) '서로 굽히지 아니하고 마주 겨루어 버티다.'라는 뜻의 '맞서다'는 'ㅈ' 받침을 씁니다.

1주차

Day 05

본문 24쪽

1 ③
2 (1) 어종 (2) 멸종
3 (1) 유사 (2) 종자
4 류
5 해설 참조

1 '종류'는 '사물의 부분을 나누는 갈래.'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어종'은 물고기의 종류를, '직종'은 직업의 종류를, '업종'은 '직업이나 영업의 종류'를 뜻하므로, 여기에 쓰인 '종'은 '종류'라는 뜻입니다.

2 (1) '어종'은 물고기의 종류를 뜻하는 낱말이고, (2) '멸종'은 '씨가 없어짐'을 뜻하는 낱말로 생물의 한 종류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3 (1) '서로 비슷함.'이라는 뜻의 낱말은 '유사'입니다. (2) '식물에서 나온 씨 또는 씨앗.'을 뜻하는 낱말은 '종자'입니다.

4 '몸에 깃털과 날개가 있고 날 수 있으며 다리가 둘인 동물.'은 '조류', '주로 몸이 비늘로 덮여 있으며, 물속에 살면서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동물.'은 '어류'입니다. 두 낱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류(類)'는 '무리'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류'는 낱말의 첫 글자에서만 '유'라고 쓰므로 답을 '유'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종(種)'과 '류(類)'가 들어가는 낱말을 글자판에서 찾아서 뜻을 한 번 더 익혀 봅니다.

백	점	송	울	평	창	구
인	사	어	부	행	유	례
종	착	지	동	유	가	역
타	악	도	상	작	우	리
명	기	종	아	리	세	업
운	최	고	동	종	어	종
멸	종	좌	석	섬	유	류

2주차

Day 06

본문 30쪽

1 (1) 2 (2) 3 (3) 1 (4) 4
2 (1) 노비 (2) 천문 (3) 전념
3 (1) ○ (3) ○
4 (1) ② (2) ①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전념 (2) 공중 (3) 극복
6 ③ **7** 정원
8 (1) 로서 (2) 로써 (3) 로서
9 (1) 쐬면 (2) 꾀면
10 (1) ① (2) ③ (3) ②

1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였던 장영실은 상의원에 들어가 궁중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명으로 유학을 다녀온 장영실은 여러 기구를 발명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종3품 대호군이라는 벼슬에 올랐습니다.

3 장영실이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천문 기구는 간의와 혼천의입니다.

4 '개천'은 '어려운 환경'을, '용'은 '훌륭한 인물'을 뜻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꿈도 못 꾸다'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①은 '숨을 돌리다', ②는 '발 디딜 틈이 없다', ④는 '머리를 싸매다'라는 관용어의 뜻입니다.

7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세종은 훌륭한 인물이지만 왕의 아들이었으므로, '개천'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8 (1) '궁중 기술자'는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로서'가 알맞습니다. (2) 대화는 갈등을 풀어 주는 수단이 되므로, 대화 뒤에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로써'가 어울립니다. (3) '선배'는 경험이나 지위 등이 더 앞선 사람을 가리키므로 '-로서'가 알맞습니다.

9 준말은 낱말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1) '쏘이다'의 준말은 '쐬다'로, '얼굴이나 몸에 바람이나 햇빛 등을 직접 받다.'라는 뜻입니다. (2) '꼬이다'는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준말인 '꾀다'로도 쓸 수 있습니다.

10 (1) '전념한'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쓴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는 뜻의 '몰두한'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2)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낸다는 뜻의 '발굴해'는 '찾기 어려운 사람이나 사물을 찾아서 드러내다.'라는 뜻의 '찾아내'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극복하고'는 나쁜 조건이나 힘든 일 등을 이겨 낸다는 뜻이므로, '이겨 내고'로도 쓸 수 있습니다.

2주차

Day 07

본문 34쪽

1 (1) 아낙네 (2) 파리 (3) 왼쪽
2 세호
3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② (2) ③ (3) ① (4) ④
5 (3) ×
6 (1) ○
7 (1) 켤레 (2) 점 (3) 다발
8 ④
9 (1) 그려진 지 (2) 안녕하신지 (3) 떠난 지

2 글쓴이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고흐의 그림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을 통해 그림에는 정답이 없으며 자신만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생각을 알맞게 파악한 친구는 세호입니다.

3 '획을 긋다'는 '어떤 범위나 시기를 분명하게 구분 짓다.'라는 뜻으로, 이를 가장 올바르게 활용한 문장은 ㉢입니다. ㉠은 '뛰어난'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은 늘 있어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이므로, '획을 긋다'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이면'은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뜻합니다. (2) '고되다'는 '하는 일이 힘에 겨워 몹시 피곤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강인하다'는 '억세고 질기다.'라는 뜻입니다. (4) '배회하다'의 뜻은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입니다.

5 '단정하다'는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망설이다'는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므로 '단정하다'의 뜻과 관련 없는 낱말입니다.

6 '빛을 보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거나 노력했던 일이나 물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정받는 일을 뜻합니다. (2)는 '뒤끝을 보다', (3)은 '물로 보다'라는 관용어의 뜻입니다.

7 (1) 신발, 양말, 장갑 등 짝이 되는 두 개를 한 벌로 셀 때는 수를 세는 말 다음에 '켤레'를 씁니다. (2) 그림이나 옷 등을 셀 때는 '점'을 씁니다. (3) 꽃이나 채소, 돈 등의 묶음을 셀 때는 '다발'을 씁니다.

8 '등장하다'는 '중요한 일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사물이나 인물, 현상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나타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9 (1), (3)의 '지'는 '그려진 다음', '떠난 다음'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므로,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반면 (2)의 '지'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안부가 궁금한 의문을 나타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2주차

Day 08

본문 38쪽

1 (3) ○
2 (1) 신학기 (2) 소외감
3 (1) ② (2) ① **4** (3)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절실히 (2) 동지애 (3) 탐색
6 (1) 황폐 (2) 시기 (3) 소외감
7 (1) ㉢ (2) ㉠ (3) ㉡ (4) ㉣
8 (1) 헤매는 (2) 빼앗고 (3) 속살거리는데
9 (1) 만듦 (2) 베풂 (3) 이끎 (4) 힘듦
10 (1) 따님 (2) 화살 (3) 다달이 (4) 바느질

1 글쓴이는 신학기에 친구들과 뿔뿔이 헤어져 외로움을 겪었던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을 통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영혼을 함께 나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글쓴이는 인생을 바다를 건너는 항해에,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파도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4 글쓴이는 망망대해를 헤매는 듯한 인생은 신학기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세상도 한번 살아 볼 만하다는 용기가 솟는다고 하였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매우 급하고 필요하게.'라는 뜻의 낱말은 '절실히'입니다. (2)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의 사랑.'을 '동지애'라고 합니다. (3)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등을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해 살피어 찾음.'을 '탐색'이라고 합니다.

6 (1)에는 정신이나 생활 등을 거칠고 메말라 가게 만든다는 뜻의 '황폐'가 알맞습니다. (2)에는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시기'가 어울립니다. (3)은 친구를 사귀지 못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므로,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멀어진 듯한 느낌.'이라는 뜻의 '소외감'이 알맞습니다.

7 (1)의 '먹다'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라는 뜻이며, (2)는 '운동 경기에서 점수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3)은 '어떤 나이가 되거나 나이를 더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 (4)의 '먹다'는 음식을 배 속에 들여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8 (1) '헤매다'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헤매'이므로 '헤매이는'은 틀린 표현입니다. (2) '빼앗다'에서 받침 'ㅅ'을 'ㅆ'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뒤에 오는 내용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는 '-는데'를 써야 합니다.

9 형태가 바뀌는 말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ㅁ'을 붙이면 이름을 나타내는 말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받침 'ㄹ'을 살려 'ㄺ'으로 써야 합니다.

10 '따님', '화살', '다달이', '바느질'은 앞말에 있는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받침을 쓰지 않습니다.

2주차

Day 09

본문 42쪽

1 (1) 지구, 지구 (2) 태양, 태양
2 (3) ○
3 (1) 천동설 (2) 지구 (3) 망원경 (4) 지동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① (2) ③ (3) ②
5 (1) 생전 (2) 대신 (3) 출간
6 (2) ○
7 (1) 쉬었다 (2) 멈췄던 (3) 바뀌었다 (4) 내세웠다
8 (1) 1500년간 (2) 부산 간
(3) 세대 간 (4) 한 달간
9 (1) 나는 차를 닦았다.
(2) 차가 주차장에 있었다.

1 천동설은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이고, 지동설은 지구를 비롯한 모든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2 당시 유럽 사회는 천동설을 당연하게 여겨서 이를 의심하거나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 큰 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하였고 이후 갈릴레이는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3) '고정불변하다'에서 '고정'은 '한번 정한 대로 변경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5 (1)은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생전'이 알맞습니다. (2)는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이 하던 집안일을 맡는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대신'이 어울립니다. (3)은 드라마 속 인물이 쓴 책이 실제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므로, '출간'이 알맞습니다.

6 주어진 문장에서 밑줄 친 '통하다'는 '내적으로 관계가 있어 연계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뜻의 한자 성어로 알맞은 것은 '일맥상통'입니다.

7 '멈추었던'은 '멈췄던'과 같이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쉬었다', '바뀌었다', '내세웠다'를 '셨다', '바꼈다', '내세었다'와 같이 줄여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8 (1), (4)처럼 '간'이 기간을 나타내는 '동안'의 뜻으로 쓰일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간'을 붙여 써야 합니다. 반면 (2), (3)처럼 '간'이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거리나 관계를 나타낼 때는 띄어 써야 합니다.

9 두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낱말을 찾아 문장을 두 개로 나누어 봅니다. 주어진 문장에는 '차'가 공통으로 들어 있으므로 '차'가 들어간 문장을 두 가지 씁니다.

2주차

Day 10

본문 46쪽

1 ③
2 ㉡
3 (1) ② (2) ①
4 (1) 고백 (2) 충고
5 ① 경고문 ② 고백 ③ 광장 ④ 광고 ⑤ 충고

1 '광야'는 '텅 비고 넓은 들.', '광장'은 '넓은 마당', '광고'는 '널리 알림.', '광역시'는 '넓은 도시'를 뜻합니다. 이 낱말들에서 '광'은 '넓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2 '광야'는 '넓을 광(廣)'과 '들 야(野)'가 쓰인 낱말로,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을 뜻합니다.

3 (1)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경고문'은 '어떤 일에 대해 조심하거나 삼가라고 주의를 주는 글.'입니다.

4 주어진 문장은 꽃병을 깨뜨린 일을 어머니께 밝히라고 사촌 언니가 타일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에는 숨긴 사실을 솔직하게 모두 다 말한다는 뜻의 '고백'이, (2)에는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른다는 뜻의 '충고'가 알맞습니다.

5 제비는 행복한 왕자 동상 앞에서 '경고문'을 발견했고, 행복한 왕자는 제비에게 자신이 불행한 왕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은 광장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행진의 주인공은 광고에 나온 얼음 공주였습니다.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열 개 먹겠다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충고했습니다.

- 고백(告 고할 고 白 흰 백):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 광고(廣 넓을 광 告 고할 고):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
- 광장(廣 넓을 광 場 마당 장):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터.
- 충고(忠 충성 충 告 고할 고):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
- 경고문(警 깨우칠 경 告 고할 고 文글월 문): 어떤 일에 대해 조심하거나 삼가라고 주의를 주는 글.

3주차

Day 11

본문 52쪽

1 ④
2 ㉮ → ㉰ → ㉯ → ㉱
3 (1) ② (2) ① 4 (1)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② (2) ③ (3) ①
6 (1) 대립 (2) 습격 (3) 해산
7 ①
8 (1) 드러났다 (2) 받아들이지
(3) 잠갔다 (4) 바람
9 (1) ○
10 (1) [동물] (2) [뱅미] (3) [장문] (4) [형명]

1 이 글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변 국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 삼부회가 열렸으나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자 평민 대표들은 따로 국민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루이 16세가 국민 의회를 해산하려고 하자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국민 의회는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점령했고 프랑스 혁명 결과 공화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 ㉠은 한 번 한 말은 순식간에 멀리 퍼지므로 말조심을 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1) '대립'은 '의견이나 처지, 속성 등이 서로 반대되거나 맞지 않음.'을 뜻하고 (2) '습격'은 '갑자기 상대편을 덮쳐 침.'을 뜻하며 (3) '해산'은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짐. 또는 흩어지게 함.'을 뜻합니다.

7 '세금을 내다'와 '세금을 걷다'는 뜻이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내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바치다'나 '납부하다'입니다. '분노하다'와 '화가 나다'는 뜻이 비슷한 표현이므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인정하다'는 '어떤 것이 확실하다고 여기거나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8 (1)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라는 뜻의 '드러나다'는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2) '다른 사람의 요구, 성의, 말 등을 들어주다.'라는 뜻의 '받아들이다'는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습니다. (3) '잠갔다'의 기본형은 '잠그다'이며 '잠구다'로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은 '바램'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9 '뿐'은 이름을 나타내는 말과는 붙여 쓰고, 형태가 바뀌는 말 뒤에서는 띄어 씁니다. (2)는 '했을 뿐이다', (3)은 '있을 뿐이지', (4)는 '학교뿐만'과 같이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10 받침 'ㄱ'이 [ㅇ]으로 소리 나므로 [동물], [뱅미], [장문], [형명]과 같이 발음해야 합니다.

3주차

Day 12

본문 56쪽

1 (1) ○ (2) × (3) ○
2 ④
3 (1) 재촉 (2) 가위 (3) 얼빠진
4 (2)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③ (2) ① (3) ②
6 (1) 헛기침 (2) 옷맵시 (3) 색싯감 / 신붓감
7 (1) ② (2) ①
8 (1) ② (2) ① (3) ①
9 (1) ① 지그시 ② 지긋이
(2) ① 채 ② 체
10 (1) 갈게 (2) 살꼬 (3) 할게요

1 (2) 이 글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엿장수에 대한 남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남이는 엿장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2 ④ 영이와 윤이는 남이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별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4 '눈이 동그래지다'는 놀라거나 이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목메다'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막히다.'라는 뜻이고, (2) '얼빠지다'는 '정신이 없어지다.'라는 뜻입니다. (3) '재촉하다'는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다.'라는 뜻입니다.

6 (1) '헛기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목청을 가다듬기 위하여 일부러 하는 기침.'이고, (2) '옷맵시'는 '차려입은 옷이 어울리는 모양새.'를 뜻합니다. (3) '색싯감'은 '신부가 될 만한 인물.'을 뜻합니다.

7 (1)은 '물이 밖으로 스며 나올 정도로 축축하게 젖은 모양'을, (2)는 '넉넉하게'를 뜻합니다.

8 '넓다[널따]', '얇다[얄따]' 등과 같이 받침 'ㄼ'은 [ㄹ]로 발음되지만 '넓적하다'는 'ㄹ'이 없어지고 'ㅂ'으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1) '넓적한'은 [넙쩌칸], (2) '얇지만'은 [얄찌만], (3) '넓지는'은 [널찌는]으로 읽어야 합니다.

9 (1) '지그시'와 '지긋이'는 발음이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알맞은 낱말을 넣습니다. (2) '채'와 '체'를 구분할 때 '채'는 '상태'와 '체'는 '척'과 바꾸어서 의미가 통하는 낱말을 고릅니다.

10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ㄹ게'는 [께]로 소리 나더라도 '게'로 적는 것이 알맞습니다. '할까', '할꼬'와 같이 묻는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3주차

Day 13

본문 60쪽

1 (1) ○ (2) ○ (3) ×
2 ㉠
3 (1) 수명 (2) 섬유 (3) 중성
4 모양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① (2) ③ (3) ②
6 (1) 보존 (2) 형체 (3) 물리적
7 (1) 해 (2) 장점
8 (1) 만들었다 (2) 할 것이다 (3) 되고 있다
9 (1) 띠고 (2) 역할 (3) 썩은
10 (1) 닫힌다 (2) 보이지 (3) 쓰이고

1 (3) 일반적인 종이(산성지)는 식물 섬유를 뽑아내기 위해 빻고 찧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지만, 한지는 닥나무를 잿물에 넣어 삶은 다음 두드려서 식물 섬유를 뽑아낸다고 하였습니다.

2 이 글에서 한지에 없는 양지의 장점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구 정광 대다라니경』은 천이백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했으므로 만들어진 시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한지는 질기고 수명이 오래간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닥나무가 양지의 원료보다 섬유의 길이가 길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지는 중성을 띠어서 오랜 시간 색이 변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4 '각양각색'은 '여러 가지의 모양과 빛깔.'이라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1)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이라는 뜻이 있는 낱말입니다. (2) '형체'는 '물건의 생김새나 그 바탕이 되는 몸체.'를 뜻하고 (3) '물리적'은 '몸이나 무기 등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7 (1) '이롭다'와 뜻이 반대되는 낱말은 '해롭다'입니다. (2) '장점'과 '단점'은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8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가 호응하는 문장이 되도록 서술어를 바꾸어 씁니다. (1) '옛날'은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만들었다'로 고쳐 씁니다. (2) '앞으로'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할 것이다'와 같이 고쳐 씁니다. (3) 현재를 나타내는 말인 '지금'과 호응하도록 '되고 있다'로 고쳐 씁니다.

9 (1) '미소를 띠다.'가 알맞은 표현입니다. '띄다'는 '눈에 보이다, 남보다 훨씬 두드러지다'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2) '역활'은 '역할'을 잘못 쓴 낱말입니다. (3) '음식물이나 자연물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상하거나 나쁘게 변하다.'라는 뜻의 '썩다'는 받침으로 'ㄱ'을 씁니다.

10 '쓰여지다', '닫혀지다', '보여지다'는 '쓰이다', '닫히다', '보이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3주차

Day 14

본문 64쪽

1 (1) × (2) ○ (3) ×
2 ④
3 (1) 판단 (2) 정의 (3) 광화문
4 (1)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① (2) ② (3) ③
6 (1) 상징 (2) 대비 (3) 법원 (4) 집행
7 ②, ③
8 (1) [여칼] (2) [올치]
(3) [차카고] (4) [지팽하다]
9 (1) 한번 (2) 한 번 (3) 한번 (4) 한 번
10 (1) 뒤덮인 (2) 나는 (3) 해님

1 (1) 해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3) 해태가 광화문 앞에 세워진 것은 불기운을 막고 경복궁을 지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글에는 광화문 앞에 해태가 세워졌다는 내용만 소개되어 있고 해태상이 서울에 많은 까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동물인 해태는 정의를 지키고 법을 상징했습니다. 또, 해태가 불을 막아 주는 신비한 동물이기 때문에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세웠습니다.

4 법원은 법을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회',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7 '가리다'는 '잘잘못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을 따져서 구별하거나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8 (1) '역할'은 받침 'ㄱ' 뒤에 'ㅎ'이 오므로 [여칼]로 발음합니다. (2) '옳지'는 받침 'ㆆ' 뒤에 'ㅈ'이 오므로 [올치]로 소리 납니다. (3) '착하고'의 받침 'ㄱ'은 'ㅎ' 앞에서 [ㅋ]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차카고]가 됩니다. (4) '집행하다'는 받침 'ㅂ'이 'ㅎ'과 만나 [지팽하다]로 소리 납니다.

9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낼 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씁니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씁니다. (1)의 '한번'은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이고, (3)의 '한번'은 '일단 한 차례.'를 뜻하는 말이므로 '한번'과 같이 붙여 씁니다.

10 '빈 데가 없이 온통 덮이다.'라는 뜻의 낱말은 '뒤덮히다'가 아닌 '뒤덮이다'입니다. (2) 기본형은 '날다'이지만 '-는' 앞에서 'ㄹ'이 사라지면서 '나는'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3) '햇님'은 '해님'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3주차

Day 15

본문 68쪽

1 ①
2 (1) 성향 (2) 개성 (3) 특성
3 자격
4 (1) ○
5 (1) 성향 (2) 개성 (3) 자격 (4) 엄격

1 '개성', '성향', '성격'에 쓰인 '성'은 '성질'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2 (1) '성향'은 '성질에 따른 경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2) '개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뜻하고, (3) '특성'은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을 뜻합니다.

3 '자격'에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무'를 붙이면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이 됩니다.

4 '각인각양'은 '사람마다 각기 다름.'이라는 뜻으로 '십인십색'과 뜻이 비슷합니다.

5 사다리는 세로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가로줄을 만나면 가로줄로 연결된 다른 세로줄로 옮겨서 내려갑니다.



4주차

Day 16

본문 74쪽

1 (1) ○ (2) × (3) ○ (4) ×
2 ②
3 (1) 각시 (2) 방학 4 노력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③ (2) ① (3) ② (4) ④
6 (1) 예측 (2) 막막 (3) 비장
7 (3) ○
8 (1) ② (2) ① (3) ②
9 (1) 웬일 (2) 왠지 (3) 웬 (4) 왠지
10 (1) 좋아하지 않는다 / 안 좋아한다
(2) 중요하지 않았다 / 안 중요했다
(3) 없었다

1 (2) 은주는 '나'에게 방학책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4) '나'는 밤을 새웠으나 방학책을 다 풀지 못했습니다.

2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은주가 찾아와 기뻤지만 방학책을 풀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방학책을 거의 다 풀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4 '나'는 은주가 찾아왔을 때 그동안 자신이 은주와 가까워지기 위해 한 노력을 떠올리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1)은 미리 헤아려 짐작한다는 뜻의 '예측하다'가 알맞습니다. (2)는 일자리를 잃어 살아갈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는 뜻이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아득하다.'라는 뜻의 '막막하다'가 어울립니다. (3)에는 '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 씩씩하고 장하다.'라는 뜻의 '비장하다'가 알맞습니다.

7 보기 와 (3)의 '풀다'는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등을 알아내거나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1)은 '마음속에 맺힌 것을 해결하여 없애거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이루다.'라는 뜻이고, (2)는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등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8 주어가 '날이'일 때는 '새다'를, 목적어가 '밤을'일 때는 '새우다'를 써야 알맞은 표현입니다.

9 '왠지'는 '왜인지'로 바꾸어 쓸 수 있을 때만 쓰이고 '웬지'가 아닌 다른 형태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와 (4)에는 '왠지'가 알맞습니다. (1)은 여기에 어찌 된 일로 왔느냐는 뜻이므로 '웬일'을 씁니다. (3)은 '어찌 된'과 바꾸어 쓸 수 있는 '웬'이 알맞습니다.

10 '별로'는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라는 뜻으로 서술어를 꾸며 주는 말입니다. '별로'는 '아니다', '않다',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하므로 문장을 쓸 때 주의합니다.

4주차

Day 17

본문 78쪽

1 (1) 3 (2) 2 (3) 1 (4) 4
2 아름 **3** ①
4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숭고 (2) 증명 (3) 열중 (4) 수록
6 (1) ① (2) ③ (3) ②
7 (1) 두껍다 (2) 검다 (3) 막다 (4) 끄다
8 (1) 잊었다 (2) 잃어 (3) 잊은 (4) 잃은
9 (1) 비정상 (2) 불공평
10 (1) 어느 날 갑자기 공이 없어졌다.
(2) 오늘날 X선은 다양하게 활용된다.

1 뢴트겐은 음극선 실험을 하던 중 형광 스크린이 빛나는 것을 보고 X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X선으로 아내의 손을 촬영해 X선을 세상에 알렸고 그 공로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X선의 특허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연구와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 이 글에 대한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뢴트겐의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본받고 싶다고 한 아름입니다.

4 '무릎을 치다'는 ㉡과 같이 어떤 장면이나 상황에서 생각을 떠올리거나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1) '틀어박혀'는 '밖에 나가지 않고 일정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으며.'라는 뜻으로, '머물며'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2) '희미하다'는 '분명하지 못하고 흐릿하다.'라는 뜻이므로, '흐릿하게, 약하게'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미지'는 '아직 알지 못함.'이라는 뜻이므로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 ㉠의 기본형은 '두껍다'로 '두껍고, 두꺼우며, 두꺼워서' 등으로 쓰입니다. ㉡의 기본형은 '검다'이고 ㉢의 기본형은 '막다'입니다. ㉣의 기본형은 '끄다'로 '끄고, 끄며, 꺼서' 등으로 쓰입니다.

8 (1)의 '잊다'는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2)의 '잃다'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갖지 않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3)의 '잊다'는 '어떤 일에 열중한 나머지 잠이나 식사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4)의 '잃다'는 '땅이나 자리가 없어져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거기에서 살지 못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9 '정상'의 앞에는 '비'를 붙이고, '공평'의 앞에는 '불'을 붙여 '아님'이나 '못함'의 뜻을 더할 수 있습니다.

10 (1) '어느 날'은 하나의 낱말이 아니므로 띄어 쓰고, (2) '오늘날'은 한 낱말이므로 붙여 씁니다.

4주차

Day 18

본문 80쪽

1 (1) 2 (2) 3 (3) 4 (4) 1
2 태율
3 (1) 차사 (2) 한양
4 ②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① (2) ② (3) ④ (4) ③
6 (3) ○ **7** ㉣
8 (1) 번번이 (2) 깨끗이 (3) 꼼꼼히
9 (1) 반듯이 (2) 반드시 (3) 반듯이 (4) 반드시
10 참

1 태조 이성계는 아들인 태종이 보낸 차사를 모두 죽이거나 가두어서 함흥에 가려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박순이 스스로 함흥에 차사로 가겠다고 나서 망아지와 어미 말을 몰고 가서 태조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박순은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에 태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 박순은 어미 말을 찾는 망아지의 울음소리를 통해 부모와 헤어져 부모를 그리워하는 태종의 마음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3 이 글은 '함흥차사'의 유래를 알려 주는 이야기입니다.

4 '감감무소식'은 '소식이나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함흥차사'와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보기 의 '찾는'은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3)입니다. (1)은 '찾다'가 '맡기거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2)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책 등을 뒤지거나 컴퓨터를 검색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7 '시간 가는 줄 모르다'는 '몹시 바삐 진행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은 '머리를 내밀다', ㉡은 '머리를 굴리다', ㉢은 '오지랖이 넓다'의 뜻입니다.

8 '번번이', '깨끗이', '꼼꼼히'가 알맞은 낱말입니다.

9 (1)은 흐트러진 책을 바르게 꽂으라는 뜻이므로, '반듯이'가 알맞습니다. (2)는 틀림없이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뜻이므로, '반드시'가 어울립니다. (3)은 신발을 바르게 신으라고 했으므로, '반듯이'를 써야 합니다. (4)는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꼭 발목을 풀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반드시'가 알맞습니다.

10 빈칸에 알맞은 말은 '참'입니다. 첫 문장의 '참'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정말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는 경우나 때.', 네 번째는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4주차

Day 19

본문 86쪽

1 (2) ○

2 (1) 줄기 (2) 떨켜층 (3) 엽록소 (4) 수분

3 (1) ㉢ - ① (2) ㉡ - ③ (3) ㉠ - ②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소복 (2) 불리 (3) 공급 (4) 진화

5 ①

6 ㉣

7 (2) ○ (4) ○

8 (1) 햇빛 (2) 햇볕 (3) 햇볕 (4) 햇빛

9 (1) ① (2) ③ (3) ②

1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한 나무의 전략입니다. 나무는 날씨가 추워지면 생존에 불리한 잎을 없애 추운 겨울을 대비합니다.

2 나무는 가장 먼저 잎에 있는 영양분의 절반을 줄기로 옮기고 떨켜층을 만듭니다. 떨켜층이 완성되면 잎의 엽록소가 파괴되어 잎의 색이 바뀝니다. 얼마 안 가 잎이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를 떨켜층이 막아서 나무의 수분을 보호합니다.

3 낙엽에는 갈색 색소인 타닌이, 은행잎에는 노란색 색소인 크산토필이, 단풍잎에는 붉은색 색소인 카로틴이 나타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보기 는 뜻이 비슷한 낱말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보호하다'는 '위험하거나 곤란하지 않게 지키고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하다'는 '재산, 이익, 안전 등을 잃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다.'라는 뜻의 '지키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②, ③, ④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낱말입니다.

6 '수'는 '헝겊에 색실로 떠서 놓는 그림이나 글자.'를 뜻하므로, '수를 놓다'는 ㉣과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 '구름같이 모여들다', ㉡는 '감투를 쓰다', ㉢은 '머리가 가볍다'의 뜻입니다.

7 '바라다'와 '바래다'는 글자가 비슷하지만 다른 낱말입니다. (1)은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므로 '바래'가 아닌 '바라'로 써야 합니다. (3)의 '바라고'는 색이 희미해졌다는 내용이므로 '바래고'로 고쳐 써야 합니다.

8 (1), (4)는 각각 해의 빛을 받는다는 뜻과 해의 빛에 눈이 부시다는 뜻이므로, '햇빛'이 알맞습니다. (2), (3)은 해의 내리쬐는 기운이 강하고 잘 든다는 뜻이므로, '햇볕'이 어울립니다.

9 (1) '군-'은 낱말의 앞에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 (2) '샛-'은 '샛노랗다', '샛말갛다'처럼 낱말의 앞에서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해 줍니다. (3) '한-'은 '한겨울', '한여름', '한낮'처럼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

4주차

Day 20

본문 90쪽

1 (1) 전기 (2) 전파 (3) 전래

2 ③

3 (1) 전 (2) 이야기

4 설명서

5 ① 설명 ② 전래 ③ 전파 ④ 설득력

1 (1)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글.'을 '전기'라고 합니다. (2) 감자는 남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에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전하여 널리 퍼뜨림.'이라는 뜻의 '전파'가 알맞습니다. (3) 대문놀이나 비석치기는 옛날부터 전해 오는 놀이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옴.'을 뜻하는 '전래'가 알맞습니다.

2 '부전자전'은 아버지의 겉모습이나 성격 등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전해지다'라는 뜻의 '전(傳)'이 들어가야 합니다.

3 '설(說)'이 들어간 낱말은 '말'과 관련된 뜻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전설'에서는 '설'이 '이야기'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4 은지와 한율이는 자전거를 조립하고 있는 중으로, 빈칸에는 자전거를 조립하는 순서, 사용법 등이 적혀 있는 글인 설명서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연설문은 '연설할 내용을 적은 글.'입니다.

5 ① 훈장님은 돌이에게 '책거리'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② 훈장님은 책거리가 옛날부터 전래된 풍습이라고 말했습니다. ③ 돌이는 책거리가 좋은 풍습이므로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④ 훈장님은 책거리를 더 자주 하려고 책 한 권을 여러 개로 나눈 돌이의 행동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설득력(說 말씀 설 得 얻을 득 力 힘 력):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깨우치는 힘.
- 설명(說 말씀 설 明 밝을 명):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 전래(傳 전할 전 來 올 래):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옴.
- 전파(傳 전할 전 播 뿌릴 파): 전하여 널리 퍼뜨림.

5주차

Day 21

본문 96쪽

1 (1) ○ (2) × (3) × (4) ○
2 (1) 천문학자 (2) 망원경 (3) 명왕성
3 (1) 포기 (2) 업적
4 아영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2) ○ (3) ○
6 (1) 관측 (2) 업적 (3) 공로
7 인위적
8 (1) 띤 (2) 띄었다 (3) 띄는 (4) 띠고
9 ②
10 (1) 보았다 (2) 물었다 (3) 잡았다

1 (2) 톰보는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찰하였고, 이후에 명왕성을 발견했습니다. (3) 톰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학을 포기했지만 별을 관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4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이므로, 결심한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아영이가 속담을 알맞게 활용하였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채용'은 '사람을 골라서 씀.'이라는 뜻입니다. (1)에 제시된 것은 '해고'의 뜻입니다.

6 (1) 첨성대는 별을 관찰하여 어떤 사실을 알아내거나 예측하던 시설이므로 '관측'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2) 세종대왕이 이루어 낸 일에 대해 말했으므로 '업적'이 알맞습니다. (3) 전염병 퇴치에 힘쓴 것은 좋은 일을 이루는 데 노력한 것이므로 '공로'를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7 '자연적'과 '인위적'은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8 '띄다'는 '뜨이다'의 준말입니다. (1)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띠다'가 알맞습니다. (2) '눈에 보이다'라는 뜻의 '띄다'를 써야 합니다. (3) '남보다 훨씬 두드러지다.'라는 뜻의 '띄다'를 써야 합니다. (4) 용무, 사명을 지닌 것이므로 '띠다'가 알맞습니다.

9 '맨-'이 '눈'에 붙으면 '맨눈'이 되어 '안경이나 망원경, 현미경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보는 눈.'이라는 뜻의 낱말이 됩니다. '맨바닥'은 '아무것도 깔지 않은 바닥.'이라는 뜻이고, '맨주먹'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주먹.'이라는 뜻입니다.

10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알맞도록 고쳐 씁니다. (1) 주어인 '나'와 호응하도록 '보았다'로 고쳐 씁니다. (2) '고양이가 나를 물었다.'가 알맞은 문장입니다. 서술어를 그대로 쓰려면 '내가 고양이에게 물렸다.'가 되어야 합니다. (3) 주어 '예리가'에 맞게 서술어를 '잡았다'로 고쳐야 합니다. 물고기가 주어로 들어가려면 '물고기가 예리에게 잡혔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5주차

Day 22

본문 100쪽

1 (3) ×
2 브로치
3 (1) 주인 (2) 태도
4 ④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가책 (2) 청천벽력 (3) 낭만적
6 (1) ① (2) ②
7 (1) ② (2) ①
8 (1) 해져 (2) 어이가 (3) 꽂혀
9 (1) 보라빛 → 보랏빛 (2) 호수가 → 호숫가
10 (1) [듣꼬] (2) [업꼬] (3) [먹찌] (4) [밥또]

1 앤은 자신이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거짓 고백까지 했지만 소풍을 못 가게 되자 슬퍼서 밥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2 마릴라의 브로치가 없어진 일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3 '시치미'는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4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자 엉뚱한 짓을 하여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므로 '시치미를 떼다'와 의미가 비슷한 속담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가책'은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2) '청천벽력'은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3) '낭만적'은 '감동적이고 달콤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6 (1) '다그치다'는 '일이나 행동 등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다.'라는 뜻으로 '몰아세우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2) '애원하다'는 '사정하다'나 '부탁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7 (1)에서 '반전'은 '일의 형세가 뒤바뀜.'이라는 뜻입니다. (2)의 '반전'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8 (1) '닳아서 떨어지다.'의 뜻을 가진 낱말은 '해지다'입니다. (2) '어이'는 '없다'와 함께 쓰여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3) '꽂히다'의 받침은 'ㅈ'을 씁니다.

9 '보랏빛'은 '보라'와 '빛'을, '호숫가'는 '호수'와 '가'를 합해서 만든 낱말입니다. '보라'와 '호수'가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낱말 사이에 'ㅅ'을 넣어 '보랏빛'과 '호숫가'로 써야 합니다.

10 (1) '듣'의 받침 'ㄷ'이 '고'와 만나 [듣꼬]로 발음됩니다. (2) 받침 'ㅄ'은 [ㅂ]으로 소리 나며 '없' 뒤에서 '고'는 [꼬]로 발음합니다. (3) 받침 'ㄱ' 뒤에 '지'가 오므로 [먹찌]로 소리 납니다. (4) '밥'의 받침 'ㅂ'이 '도'와 만나면 '밥또'로 발음합니다.

5주차

Day 23

본문 104쪽

1 ②
2 ㉢
3 (1) 시인 (2) 마음
4 동화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③ (2) ① (3) ②
6 ①
7 (1) ① (2) ②
8 (1) 틀려서 (2) 다르다고 (3) 달라서 (4) 틀리지
9 (1) 낫 (2) 낫 (3) 나은 (4) 나을
10 (1) ② (2) ② (3) ② (4) ②

1 이 글은 '퇴고'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뜻인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2 '자초지종'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는 '가도가 한유의 행차와 부딪치게 된 사연'을 가리킵니다. 가도는 나귀를 타고 가면서 시구를 고민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행차와 부딪쳤습니다. 나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갔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 한유도 시인이었으므로 시를 쓰는 가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은 가도에게 화내지 않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4 이 글에서는 퇴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가장 알맞게 말한 사람은 동화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주어진 문장은 처지가 같은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뜻이 있는 한자 성어는 '마음과 마음으로 뜻이 통함.'이라는 뜻의 '이심전심'입니다.

7 (1) 회장으로 뽑기로 정했다는 뜻이므로 ①이 알맞습니다. (2) 시인이 노력하여 이룬 보람 있는 결과라는 뜻이므로 ②가 알맞습니다.

8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등이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의 뜻을 나타낼 때 '틀리다'를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르다', '틀리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 '같다'와 '맞다'를 넣어 보면 알맞은 낱말을 고를 수 있습니다.

9 '낫다'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낫'이지만 뒤에 오는 말에 따라 형태가 불규칙하게 바뀝니다. '낫다'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낫고, 낫지만, 나아, 나은'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10 '관리', '인류', '신라', '진리'는 모두 앞글자의 받침 'ㄴ'이 뒤에 이어지는 'ㄹ'과 만나 [ㄹ]로 소리 납니다.

5주차

Day 24

본문 108쪽

1 (1) × (2) ○ (3) ×
2 (1) 3 (2) 4 (3) 2 (4) 1
3 언어 4 통일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결과 (2) 교류 (3) 인물
6 ④ 7 (1) ① (2) ②
8 ①
9 (1) 예요 (2) 예요 (3) 이에요 (4) 이에요
10 (1) 함께 (2) 관광 (3) 기울이고

1 (1) 남북의 교류는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북한은 우리가 유일하게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2 남북은 1972년에 최초로 통일 문제를 의논하고,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었고, 남북 예술단이 함께 공연한 것은 2018년입니다.

3 남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북은 달라진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 '겨레말 큰 사전'에 수록될 어휘를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통일은 하나의 낱말에 두 개 이상의 관련된 뜻이 있는 다의어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결실'은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이라는 뜻입니다. (2) '문화나 사상 등이 서로 통함.'은 '교류'의 뜻입니다. (3)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인물.'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6 보기 의 '길'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이와 같은 뜻으로 '길'이 쓰인 것은 ④입니다.
①: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된 솜씨.
②: 걷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과정.
③: 길이의 단위.

7 (1) '머지않다'는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①: 시간적으로 머지않아. / ②: 서두르지 않고 뒤에 천천히.
(2) '왕래하다'는 '가고 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①: 문 등을 열고 닫고 하다. / ②: 거리나 길을 오거니 가거니 하다.

8 '겨레말'은 '겨레+말', '단일팀'은 '단일+팀', '오가다'는 '오다+가다'로 나눌 수 있는 낱말입니다.

9 '예요'는 '이에요'의 준말입니다.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이에요'가 붙고,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예요'가 붙습니다.

10 '함께', '관광', '기울이다'가 알맞은 낱말입니다.

5주차

Day 25

본문 112쪽

1 ③
2 (1) 상업 (2) 상품
3 ④
4 (1) 작품 (2) 식품
5 ① 품질 ② 상점가 ③ 상업
④ 식품 ⑤ 협상 ⑥ 학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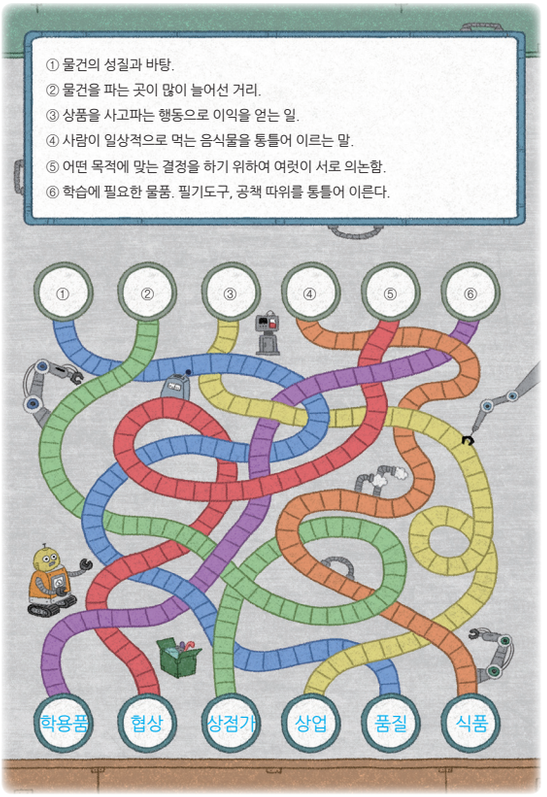
1 '상점'은 '물건을 파는 곳.', '상품권'은 '표시된 금액만큼의 상품과 바꿀 수 있는 표.', '상가'는 '상점들이 죽 늘어서 있는 거리.', '상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인 장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낱말들입니다.

2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에 관한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상업, 상품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3 '품질'과 '제품'에는 '물건'을 뜻하는 '品(품)' 자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4 '작품'은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이라는 뜻이고, '식품'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5 '商(장사 상)' 자와 '品(물건 품)' 자가 들어가는 낱말을 빈칸에 써 봅니다.



6주차

Day 26

본문 118쪽

1 (2) ×
2 (1) ㉠ - ② (2) ㉡ - ①
3 (1) 투자 (2) 공부 (3) 성공
4 (1)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투자 (2) 영향력 (3) 인식
6 (1) ① (2) ②
7 (1) ① (2) ②
8 (1) 내리다 (2) 늘어나다 (3) 감소하다
9 (1) 이자 (2) 금리
10 (1) 자르다 (2) 팔

1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2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가 늘어 예금이 증가하고, 주식 투자가 감소합니다. 반면에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줄어 예금이 감소하고 주식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3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식을 공부해야 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주식 투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4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지민이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것이고, '영향력'은 어떤 것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입니다. '인식'은 무엇을 분명히 알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6 '대가'는 동형어로 글자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낱말입니다.

7 '요행'은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이고,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결정되도록 하는 원인이나 기회라는 뜻입니다.

8 (1) 오르다: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등이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 / 내리다: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등이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낮아지다.
(2) 줄어들다: 부피나 분량 등이 본디보다 작아지거나 짧아지거나 적어지다. / 늘어나다: 부피나 분량 등이 본디보다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많아지다.
(3) 증가하다: 양이나 수치가 늘다. / 감소하다: 양이나 수치가 줄다.

9 (1)은 '리'가 낱말의 첫 글자에 있으므로 '이자'로 써야 하고, (2)의 '리'는 첫 글자가 아니므로 '금리'로 씁니다.

10 '덧나다'는 '이미 나 있는 위에 덧붙어 나다.', '덧대다'는 '대어 놓은 것 위에 겹쳐 대다.', '덧붙이다'는 '붙은 위에 겹쳐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입질'은 '낚시질할 때 물고기가 낚싯밥을 건드리는 일.', '주먹질'은 '주먹을 휘둘러 위압하거나 때리는 짓.', '손가락질'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짓.'을 뜻합니다. '덧자르다'와 '팔질'은 없는 낱말입니다.

6주차

Day 27

본문 122쪽

1 (1) ○ (2) × (3) × (4) ○
2 (1) × **3** 솔개
4 (1) 귀신 (2) 나타나고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① (2) ④ (3) ② (4) ③
6 (1) ○
7 옳다, 타당하다
8 (1) 가 (2) 이 (3) 께서
9 ③
10 (1) 헤치고 (2) 헤치며 (3) 해칠

1 (2) 홍길동이 雨(우)를 써서 날리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 홍길동은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시키고 간신들을 잡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2 홍길동의 위엄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것은 그 기세가 대단하다는 뜻으로 축지법을 써서 도망친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3 홍길동의 명령으로 신하들을 잡아온 장수들의 모습을 병아리를 채어 오는 솔개에 비유하였습니다.

4 '신출귀몰'은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보기 에서 '종적'은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이라는 뜻으로 (1)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2)의 '종적'은 돌아가신 분의 업적을 뜻합니다.

7 '마땅하다'는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으로 '옳다', '타당하다'와 뜻이 비슷합니다.
- 옳다: 사리에 맞고 바르다.
- 타당하다: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

8 앞에 오는 낱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 없으면 '가'가 붙습니다. 주어를 높여 쓸 때에는 '께서'를 붙입니다. 솔개는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가'를 쓰고, 홍길동은 받침이 있으므로 '이'를 씁니다. '전하'는 왕을 높여 부르는 말이므로 높임을 나타내는 말을 써야 합니다.

9 보기 의 낱말은 포함 관계입니다. '계절'과 '겨울', '무기'와 '총', '옷'과 '바지'는 각각 포함 관계이지만 '임금'과 '신하'는 각각 다른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0 '해치다'와 '헤치다'는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낱말이므로 뜻을 생각하며 알맞은 낱말을 써야 합니다. (1)은 병사가 구름을 뚫고 나타났다는 뜻이고, (2)는 눈을 뚫고 등교했다는 뜻입니다. (3)은 무리한 운동은 건강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주차

Day 28

본문 126쪽

1 ㉯ → ㉰ → ㉱ → ㉮
2 ④
3 (1) ② (2) ① (3) ④ (4) ③
(5) 융통성 (6) 생각
4 (2)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뱃전 (2) 융통성 (3) 출세
6 (1) ① (2) ②
7 (1) 아랑곳하지 (2) 기진맥진한
8 (1) 그때 (2) 그다음 (3) 그 자리
9 (1) 구경꾼 (2) 나무꾼 (3) 낚시꾼
10 ②

2 젊은이의 행동을 지켜본 노인의 말은 젊은이가 뱃전에 표시한 행동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3 '배에 표시하는 행동'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뜻합니다.

4 '수주대토'는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장에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그루터기 옆에서 토끼가 부딪히기만을 기다렸던 농부는 농사를 망쳤습니다. '수주대토'도 '각주구검'처럼 한 가지 일에 얽매여 발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1) '요동치다'는 하나의 낱말이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어입니다. 문맥에 따라 알맞은 뜻을 골라 봅니다. (2) '사연'은 동형어로 글자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낱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7 '관심을 가지다'는 '아랑곳하다'와 '탈진하다'는 '기진맥진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8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때'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 '그다음'은 '그것에 뒤이어 오는 때나 자리.'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의 낱말이 아니므로 띄어 씁니다.

9 뜻을 더해 주는 말 '-꾼'의 뜻을 보고 낱말을 만들어 봅니다. (1)은 '-꾼'이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2)의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3)의 '-꾼'은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0 '배+전'은 '전'이 [쩐]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낱말 사이에 'ㅅ'을 넣어 '뱃전'으로 씁니다. '배+놀이'는 'ㄴ' 앞에서, '배+멀미'는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더해집니다. [밴놀이], [밴멀미]로 소리 나는 두 낱말은 각각 '뱃놀이', '뱃멀미'로 씁니다. 이와 달리 '배표'는 낱말 사이에 'ㅅ'을 넣지 않습니다.

6주차

Day 29

본문 130쪽

1 (1) × (2) ○ (3) ×
2 ④
3 ㉡
4 (1) 수명 (2) 지속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언급 (2) 혁신 (3) 지속 (4) 개량
6 (1) ① (2) ②
7 (1) 발견 (2) 발명
8 (1) 천여∨번 (2) 몇십∨분 (3) 수만∨번
9 (1) 안 (2) 않고 (3) 않았다 (4) 안
10 (1) ① (2) ② (3) ① (4) ①

1 (1) 에디슨이 만들기 전에도 전구가 있었고, 에디슨은 전구를 개량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3) 마지막 문단에서 에디슨은 과학자가 아닌 발명가라고 하였습니다.

2 첫 문단에서 정전기가 마찰로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정전기를 없애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3 이 글에서 필라멘트는 백열전구 내부에 스프링처럼 꼬아 놓은 가느다란 금속선이며 빛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당시에는 필라멘트의 수명이 짧아 전구를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에디슨은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필라멘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1) ① 필수적: 꼭 있어야 하거나 해야 하는 것. ② 필연적: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2) ① 가끔: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게. ② 자주: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

7 (1) 원래 있던 길을 찾아낸 것이므로 '발견'을 써야 합니다. (2) 에디슨은 소리를 녹음하는 기계를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냈으므로 '발명'을 써야 합니다.

8 단위를 나타내는 말인 '번', '분'은 앞말과 띄어 씁니다. (1)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말인 '-여'는 앞말에 붙여 씁니다. (2) '많지 않은 막연한 수를 이르는 말'인 '몇'은 숫자를 나타내는 말과 붙여 씁니다. (3) '몇', '여러', '약간'의 뜻을 더하는 말인 '수-'는 뒤에 오는 말과 붙여 씁니다.

9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다'는 '아니하다'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아니하다'를 줄여 쓸 자리에는 '않다'를 쓰고, '아니'를 줄여 쓸 자리에는 '안'을 씁니다.

10 받침 'ㄷ, ㅌ'이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뒷말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낱말의 발음과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주차

Day 30

본문 134쪽

1 개
2 (1) 개정 (2) 선의
3 (1) 개선 (2) 최악
4 개과천선
5 ① 개혁 ② 최선 ③ 개선 ④ 선의

1 두 낱말의 뜻에는 '고침'이라는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치다'의 뜻을 가진 '개(改)' 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2 (1) '개정'은 주로 문서의 내용 등을 고쳐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2) '선의'는 '착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호의'와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3 '선'과 '악'은 뜻이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1) '개악'은 고쳐서 나빠지게 한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고쳐서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의 '개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2) '가장 좋고 훌륭함.'이라는 뜻의 '최선'과 뜻이 반대되는 낱말은 '최악'입니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을 활용하여 뜻이 반대인 낱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극선: 마음씨나 행동이 더할 수 없이 착하고 고움.
  극악: 마음씨나 행동이 더할 나위 없이 악함.
-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체함.
  위악: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악한 체함.
- 선인: 선량한 사람.
  악인: 악한 사람.
- 선순환: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
  악순환: 나쁜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

4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고 착하게 됨.'이라는 뜻인 '개과천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5 영조의 개혁 정치를 떠올리며 면담 내용에 알맞은 낱말을 써 봅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쳐 왕권을 강화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백성들을 위해 세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개선(改 고칠 개 善 착할 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게 만듦.
- 개혁(改 고칠 개 革 가죽 혁): 불합리한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고침.
- 선의(善 착할 선 意 뜻 의): 착한 마음. 좋은 뜻.
- 최선(最 가장 최 善 착할 선): 가장 좋고 훌륭함. 온 정성과 힘.

7주차

Day 31

본문 140쪽

1 (1) ○ (2) × (3) ×
2 소라
3 (1) 무관 (2) 진압 (3) 벼슬 (4) 역모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③ (2) ② (3) ①
5 (1) 편애 (2) 진압 (3) 두각
6 영아
7 ②
8 (1) 그래서 (2) 그러나
9 (1) 금세 (2) 꺾였다 (3) 엎친

1 (2) 남이는 반역을 꾀했다는 모함을 받아 처형당했습니다. (3) 세조에게 다른 신하를 편애한다고 불만을 말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은 남이입니다.

2 남이는 왕인 세조의 신임을 얻었으나 다른 신하들은 그를 시기해서 모함하였습니다.

3 남이는 10대 때 무관이 되어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어린 나이에 빠르게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역모로 고발당해 처형되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함.'이라는 뜻의 '편애'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2) '강제로 억눌러 진정시킴.'이라는 뜻인 '진압'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3) 진구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것이므로 '두각'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6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뜻이므로 성적이 뛰어나 시샘을 받았다는 상황과 어울리는 말입니다. 은주가 예를 든 상황에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재헌이가 예를 든 상황에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어울립니다.

7 형태가 바뀌는 말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리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무찌르다', '갇히다', '찾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8 (1)은 이어 주는 말 앞에 원인이 되는 문장,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오므로 '그래서'를 씁니다. (2)는 이어 주는 말의 앞뒤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그러나'를 씁니다.

9 (1) '금세'는 '지금 바로.'라는 뜻으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2) '길고 탄력이 있거나 단단한 물체가 구부려져 다시 펴지지 않게 되거나 아주 끊어지다.'라는 뜻의 '꺾이다'는 받침 'ㄲ'을 씁니다. (3) '엎친 데 덮치다'라는 관용어에서 '엎치다'는 받침 'ㅍ'을 써야 합니다.

7주차

Day 32

본문 144쪽

1 (1) ○ (2) × (3) ×
2 ㉯ → ㉮ → ㉱ → ㉰
3 (1) 감자 (2) 어수룩한
4 혜진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④ (2) ③ (3) ② (4) ①
6 (1) 호의 (2) 천연덕스레
(3) 마르도록 (4) 뚱그레졌다
7 (3) ○
8 (1) 주의 (2) 낳고 (3) 씨암탉
9 (1) 까닭∨없이 (2) 엎어질∨듯∨자빠질∨듯
(3) 못∨낳으라고
10 ④

1 (2) 마름은 점순이의 아버지입니다. (3) '나'는 여태껏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새빨개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 '나'의 가족은 이 마을로 이사와 점순네의 호의로 집도 구하고 농사도 짓게 되었습니다.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받아먹지 않고 거절하자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는 화가 나서 '나'의 집 닭에게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3 점순이는 '감자'를 줌으로써 '나'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므로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표현하는 소재입니다. '나'는 점순이가 왜 자기를 괴롭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수룩한 성격입니다.

4 '침이 마르다'는 '거듭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마름'은 '땅 주인을 대신해 농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암팡스레'는 '몸은 작아도 야무지고 다부진 면이 있게.'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 거듭해서 말한다는 관용어는 '침이 마르다'이고, 놀란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눈이 뚱그레지다'입니다.

7 (1)은 일을 하기에 힘이 모자라다는 뜻으로, (2)는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는 뜻으로 '부치다'가 쓰였습니다.

8 (1)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을 뜻하는 말은 '주의'입니다. '주위'는 '어떤 곳의 바깥 둘레.' 또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2)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를 뜻하는 말은 '낳다'입니다. (3) '씨암닭'이 아닌 '씨암탉'이 알맞은 표현입니다.

9 (1) '까닭'과 '없이'는 각각의 낱말이므로 띄어 씁니다. (2) '엎어질'과 '자빠질'은 '듯'을 꾸며 주는 말이므로 띄어 씁니다. (3) 부정을 나타내는 말 '못'은 '낳다'를 꾸며 줍니다. 두 낱말은 각각의 낱말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10 '잡아먹다'는 '잡아(잡다) + 먹다'로 나누어야 합니다.

7주차

Day 33

본문 148쪽

1 (1) × (2) ○ (3) ×
2 윤철
3 (1) ② (2) ① (3) ④ (4) ③
(5) 농락 (6) 권세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① (2) ③ (3) ②
5 (1) ② (2) ② (3) ① (4) ②
6 혜나
7 (1) 되어서도 / 돼서도 (2) 되었지만 / 됐지만
(3) 되지
8 (1) 벌리고 (2) 벌였다 (3) 벌이는
9 (1) 나랏일 (2) 윗사람

1 (1) 조고가 유서를 거짓으로 꾸며 호해가 황제가 되었으므로, 시황제는 부소가 황제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3) 호해와 신하들은 조고의 눈치를 보느라 사슴을 말이라고 했습니다.

2 조고가 사슴을 말이라고 한 것은 자기편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3 '농락'은 '남을 교묘한 꾀로 휘어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이라는 뜻이고,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넘보다'는 '어떤 것을 욕심내어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므로 '탐내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2) '비위'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또는 그러한 기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지닌 말은 '기분'입니다. (3) '어리석다'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으로, '어질다'와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4) '야심'은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6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7 '되어, 되어라, 되었-'을 줄여서 쓸 때 '돼, 돼라, 됐-'과 같이 씁니다. (1)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인 '되'에 '어서도'가 붙은 낱말입니다. '되어'를 '돼'로 줄여 쓸 수는 있지만 '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2) '됬지만'이 아닌 '되었지만', '됐지만'이 알맞은 표기입니다. (3)의 '돼지'는 '되+지'의 형태로 '-어'가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되지'라고 써야 합니다.

8 (1) 껍질을 열어 속의 것을 드러내는 것은 '벌리다'이므로 '밤송이를 벌리고'로 써야 합니다. (2) 잔치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벌였다'로 써야 합니다. (3) 입씨름은 말다툼이므로 '벌이는'으로 써야 합니다.

9 '나라'와 '일', '위'와 '사람'을 합해서 낱말을 만들 때에는 두 낱말 사이에 'ㅅ'을 씁니다.

7주차

Day 34

본문 152쪽

1 (3) ○
2 (1) ② (2) ① (3) ③
3 지구촌
4 (1) 가치 (2) 존중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① (2) ② (3) ③
6 ①
7 (4) ○
8 마늘, 고춧가루, 후추
9 (1) 제대로 (2) 왜곡하는 (3) 잦아졌다
10 (1) [너어서] (2) [아는] (3) [오른]

1 (1) 카레는 인도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 향신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는 모두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 '타지마할'은 인도의 대표적 건축물이고, '나마스테'는 인도의 인사말입니다. '샨티'는 인도에서 마음의 평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지구를 한 마을처럼 여기게 되었고 이를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4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관련성은 서로 관련이 있는 상태나 상황을 뜻하는 말로, 연관성과 뜻이 비슷합니다.

7 '도마 위에 오르다'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1):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라는 속담의 뜻입니다.
(2): '오지랖이 넓다'라는 관용어의 뜻입니다.
(3): '눈 뜨고 못 보다'라는 관용어의 뜻입니다.

8 '향신료'는 음식에 맵거나 향기로운 맛을 더하는 조미료입니다. 향신료에 포함되는 낱말에는 '마늘', '고춧가루', '후추' 등이 있습니다.

9 (1) '제 격식이나 규격대로.'라는 뜻의 낱말은 '제대로'라고 써야 합니다. (2)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사실에서 멀어지게 하다.'라는 낱말은 '왜곡하다'입니다. (3) '어떤 일이나 행위 등이 자주 있게 되다.'라는 뜻의 '잦아지다'는 'ㅈ' 받침을 써야 합니다.

10 'ㅎ, ㄶ,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2) '않은'은 'ㄶ'에서 'ㅎ'은 소리 나지 않고 'ㄴ'이 '은'으로 넘어가서 [아는]으로 발음합니다. (3) '옳은'은 'ㅀ'에서 'ㅎ'은 소리 나지 않고 'ㄹ'이 '은'으로 넘어가서 [오른]으로 발음합니다.

7주차

Day 35

본문 1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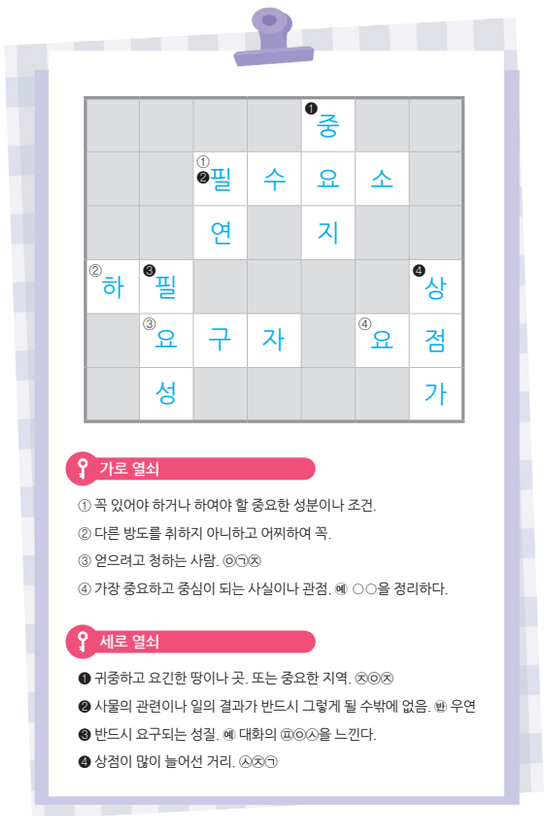
1 ②
2 필요
3 (1) 하필 (2) 요구 (3) 요점
4 ②
5 ① 필수 요소 ② 하필 ③ 요구자 ④ 요점
❶ 중요지 ❷ 필연 ❸ 필요성 ❹ 상점가

1 '필수(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함.)', '필승(반드시 이김.)', '필연적(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생필품(일상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필'은 '반드시', '꼭'이라는 뜻입니다.

2 '불필요'는 '필요'와 뜻이 반대되는 낱말로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4 빈칸에는 '중요하다'라는 뜻의 '요(要)' 자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5 낱말의 뜻과 첫 자음자를 살펴보고 '필(必)'과 '요(要)'가 들어가는 낱말을 빈칸에 채워 봅니다.



8주차

Day 36

본문 162쪽

1 (1) × (2) ○ (3) ○
2 (1) 체력 (2) 운동 (3) 실내 (4) 감소 (5) 향상
3 (1) ② (2) ①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③ (2) ① (3) ②
5 (1) 확보 (2) 통계 (3) 추세
6 성진
7 (2) ×
8 (1) [체겨근] (2) [하래한다] (3) [노리]
9 (1) 늘려야 (2) 늘여야

1 초등학생들의 체격이 9년 전보다 좋아졌지만, 초등학생들의 오래달리기 기록은 2000년보다 2009년에 더욱 느려졌습니다.

2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빈칸을 채워 봅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표현한 중심 문장은 각 문단의 첫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초등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원인)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다(결과)는 것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육성하다'는 '길러 자라게 하다.'라는 뜻으로 '기르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저하되다'는 정도, 수준, 능률 등이 낮아진다는 뜻으로 '낮아지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향상되다'는 '실력, 수준, 기술 등이 나아지다.'라는 뜻으로 '나아지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6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성진이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7 '실내'와 '실외', '증가하다'와 '감소하다'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끼리 짝 지어진 것입니다. '마련하다'와 '갖추다'는 서로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8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오면 앞 글자의 받침이 뒤에 오는 글자의 첫 소리로 옮겨져서 소리가 납니다. (1) '격'의 받침 'ㄱ'이 '은'으로 옮겨져서 [체겨근]으로 소리 납니다. (2) '할'의 받침 'ㄹ'이 '애'로 옮겨져서 [하래한다]로 소리 납니다. (3) '놀'의 받침 'ㄹ'이 '이'로 옮겨져서 [노리]로 발음합니다.

9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라는 뜻이고, '늘리다'는 '물체의 넓이, 부피 등을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체육 시설 면적은 '늘리다'와 바지 길이는 '늘이다'와 어울립니다.

8주차

Day 37

본문 166쪽

1 (4) ×

2 (1) 돈 (2) 무덤 (3) 선행

3 (3)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② (2) ③ (3) ①

5 (1) ② (2) ①

6 (4) ×

7 (1) 위로 (2) 동행

8 (1) 알다시피 (2) 곤란한 (3) 서슴지

9 (1) 주무시는 (2) 하셨다

10 (1) 가든지, 가든지 (2) 그리던
(3) 오든 말든 (4) 착했던

1 세 번째 친구는 남자의 말을 듣더니,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2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지만, 죽을 때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가족'은 무덤 앞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가족은 죽음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사람과 함께 남는 것은 바로 '선행'입니다.

3 세 번째 친구는 남자의 부탁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영문'은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까닭을 뜻하는 낱말로, '까닭'과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호의'는 친절한 마음씨를 뜻하는 낱말로, '선의'와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6 '변호하다'는 '남의 이익을 위해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비난하다'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다.'라는 뜻으로, '변호하다'와 관련 없는 낱말입니다.

7 '위로하다'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다.'라는 뜻이고, '동행하다'는 '같이 길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8 (1) '알다시피'에서 '다시피'는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음을 나타냅니다. (2) '곤란하다'를 '곤난하다'나 '골란하다'로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3) '서슴지'는 '서슴다'에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 '서슴'에 '-지'가 붙은 것입니다.

9 높임을 나타내려면 '-시-'를 넣거나 높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자다'의 높임말은 '주무시다', '하다'의 높임말은 '하시다'입니다.

10 '-든' 은 선택을 나타낼 때 쓰고, '-던'은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2), (4)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1)은 어디에 갈 것인지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내용이고, (3)은 올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든'을 씁니다.

8주차

Day 38

본문 170쪽

1 (1) 말미잘 (2) 독

2 (1) ○ (2) ○ (3) ×

3 (1) 괵나라 - 우나라 (2) 조선 - 명나라

4 (1) ① (2) ② (3) ③ (4) ④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맥락 (2) 공생 (3) 꾐

6 (1) ② (2) ① (3) ②

7 ③

8 (2) ○

9 (1) [담녁] (2) [금니]

10 (1) 갈 테니 (2) 했기 때문

11 ①

2 (3) 충신 궁지기가 진나라에 길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지만 우나라 임금은 진나라의 꾐에 넘어가 길을 내주었습니다.

3 진나라는 괵나라를 정벌하려고 할 때 우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일본은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할 때 조선에 길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4 한자 성어 '순망치한'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1) '거치다'는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라는 뜻이므로 '지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2)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뜻이므로 '발생하다'와 뜻이 비슷합니다. (3) '회유하다'는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하다.'라는 뜻이므로 '어르고 달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7 보기 의 두 낱말은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①, ②, ④도 보기 와 같이 서로 뜻이 비슷한 낱말이고 '먹다'와 '먹히다'는 뜻이 반대인 낱말입니다.

8 낱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수레'라는 낱말이 나오므로 '살'이 (2)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받침 'ㅁ'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소리 납니다.

10 (1) '테니'는 '터이니'를 줄인 표현으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2) '때문'은 앞에 오는 낱말과 띄어 씁니다.

11 '의자'는 '의'와 '자'로 나눌 수 없는 단일어입니다. 보기 의 '수레바퀴'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해서 만든 복합어입니다. '책가방', '바늘방석', '사과나무'도 복합어입니다. '책가방'은 '책'과 '가방'을, '바늘방석'은 '바늘'과 '방석'을, '사과나무'는 '사과'와 '나무'를 합해서 만든 낱말입니다.

8주차

Day 39

본문 174쪽

1 ②
2 (1) 육식 동물 (2) 대왕판다
3 (1) 소화 (2) 몸집
4 윤후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① (2) ③ (3) ②
6 (2) ○
7 (1) 함유 (2) 섭취 (3) 효과
8 (1) × **9** ②
10 (1) 어떻게 (2) 어떡해 (3) 어떡해 (4) 어떻게
11 (1) ① 끓인다 ② 끓게 한다
(2) ① 붙인다 ② 붙게 한다

1 대왕판다가 어디에서 사는지에 대한 내용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 판다의 종류에는 레서판다와 대왕판다가 있다고 했고, 판다는 육식 동물로 분류된다고 하였습니다.

3 대왕판다는 육식 동물의 소화 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식 동물과 달리 섬유질을 잘 소화하여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왕판다는 더 많은 먹이를 오랜 시간 동안 먹어야 큰 몸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이 글에서 대왕판다는 감칠맛을 담당하는 미각 유전자의 기능이 멈춰 버려서 육류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고 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밑줄 친 '주식'은 '밥이나 빵과 같이 끼니에 주로 먹는 음식.'을 뜻하는 말로, '주식'이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2)입니다. (1)의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같은 값으로 나누어 놓은 문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7 (1) 비타민은 귤에 들어 있는 성분이므로, '함유'를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2) 음식은 먹거나 섭취한다고 표현합니다. (3) '어떤 목적을 지닌 행동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를 뜻하는 '효과'가 들어가야 합니다.

8 '추정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9 '희망', '띄어쓰기', '하늬바람'은 각각 [히망], [띠어쓰기], [하니바람]으로 소리 납니다. 첫소리에 자음이 오지 않는 '의사'는 [의사]로 발음해야 합니다.

10 '어떻게'는 '어떠하게'의 준말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의 준말입니다. 본말을 넣어 보면 두 낱말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11 보기 와 같이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문장으로 바꾸어 써 봅니다. '끓이다'와 '끓게 하다'는 '액체를 몹시 뜨겁게 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이 솟아오르게 하다.'라는 뜻이고, '붙이다'와 '붙게 하다'는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8주차

Day 40

본문 178쪽

1 혼인 / 결혼
2 (1) ① (2) ③ (3) ②
3 ①
4 속수무책
5 약속 → 약혼 → 속수무책 → 결속 → 속박 → 요약 → 문단속

1 한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약혼'은 '혼인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혼인'이나 '결혼'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3 '단속', '결속'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束(묶을 속)입니다.

4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이라는 뜻인 '속수무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5 '약(約)'과 '속(束)'이 들어가는 낱말은 '약속(約束)', '약혼(約婚)', '속수무책(束手無策)', '결속(結束)', '속박(束縛)', '요약(要約)', '문단속(門團束)'입니다.



주간 테스트

1주차

정답과 해설 2쪽

1 (1) 아무렇게나 (2) 멈췄다 **2** ④
3 ① **4** ② **5** ③
6 (1) 좌우명 (2) 문구 (3) 새겼다
7 ③ **8** ④

2 ①은 '나무라셨다', ②는 '오랫동안', ③은 '도저히'로 고쳐 써야 알맞은 문장이 됩니다.

3 '저항하다'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다.'라는 뜻이므로 문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4 '유유상종', '육류'의 뜻이므로 '무리',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類'가 들어가야 합니다. ① 앉을 좌 ③ 씨 종 ④ 새 조

5 ①은 '더 이상', ②는 '할 수', ④는 '첫 번째'로 띄어 씁니다.

6 (1)에는 자기의 태도와 행동의 길잡이가 되는 '좌우명'이 들어갑니다. (2)에는 '문구'가, (3)에는 '새기다'가 어울립니다.

7 각 문장에서 '걸리다'는 '어떤 물체가 떨어지지 않고 벽이나 못 등에 매달리다.', '병이 들다.', '눈이나 마음 등에 만족스럽지 않고 언짢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8 '경계하다'와 '조심하다'는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2주차

정답과 해설 4쪽

1 획 **2** ③ **3** ②
4 ② **5** ④ **6** ①
7 ③

1 각 문장에서 '획'은 '갑자기 세게 던지거나 뿌리치는 모양',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한 번 그은 줄이나 점.'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2 '선연히'는 '실제로 보는 것같이 생생하게.'라는 뜻입니다.

3 ①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낼 때는 '로써'를 씁니다. ③ '바뀌었다'는 '바꼈다'로 줄여 쓸 수 없습니다. ④ '낯섦'이 알맞은 표현입니다.

4 밑줄 그은 한자는 각각 ① '野 들 야' ③ '廣 넓을 광' ④ '茫 아득할 망'입니다.

5 홍대용은 '어려운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뜻의 ④와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6 ② '고정불변하다'는 붙여 씁니다. ③ '점'은 수를 나타내는 말과 띄어 씁니다. ④ '동안'의 뜻을 더해 주는 말인 '-간'은 앞말과 붙여 씁니다.

7 ③에는 '고백' 대신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주의를 줌.'이라는 뜻의 '경고'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3주차

정답과 해설 6쪽

1 ④ **2** ② **3** ①
4 ④ **5** ③ **6** ②
7 ④

1 ①은 '삽시간', ②는 '지그시', ③은 '훨씬'의 뜻입니다.

2 ① '체 → 채' ③ '바램 → 바람' ④ '햇님 → 해님'으로 고쳐야 합니다.

3 '억실억실하다'는 '얼굴 모양이나 생김새가 선이 굵고 시원시원하다.'라는 뜻이므로 '목소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4 '성격', '엄격', '자격'에 쓰인 '격(格)'은 '격식', '지위', '품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5 '대립하다'는 '의견이나 처지, 속성 등이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다.'라는 뜻으로 '반대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6 빈칸에는 차례대로 '재촉하셨고', '옷맵시', '개성', '동그래졌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옷걸이'는 옷을 걸어 두도록 만든 물건으로, '가다듬다'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7 ①은 [올치], ②는 [넙쩌카고], ③은 [여칼]로 발음합니다.

4주차

정답과 해설 8쪽

1 ③ **2** ① **3** ④
4 하늘 **5** ① **6** ②
7 ④ **8** ②

1 색이 변했다는 뜻의 낱말은 '바라다'가 아닌 '바래다'입니다.

2 '수록하다'는 '모아서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3 ① 해가 내리쬐는 기운인 '햇볕'을 써야 합니다. ② '매 때마다.'라는 뜻을 나타내려면 '번번이'를 써야 합니다. ③ '틀림없이 꼭.'을 뜻하는 '반드시'를 써야 합니다.

4 '하늘'은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의 넓은 공간.', '하느님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5 ②에는 '무릎을 치다'가 알맞습니다. '무릎을 꿇리다'는 '항복하거나 굴복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③ '시간 가는 줄 모르다', ④ '엎질러진 물'이 알맞은 표현입니다.

6 '폭설'은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7 '군살'은 뜻을 더해 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④는 뜻이 있는 낱말 '심부름'과 뜻을 더해 주는 말 '-꾼'을 합해서 만든 낱말입니다. ①은 '나무'와 '판', ②는 '뒤'와 '부분', ③은 '잎'과 '자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낱말들은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8 ①, ③, ④는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짝 지어져 있습니다.

5주차

정답과 해설 10쪽

1 (1) 자초지종 (2) 청천벽력 (3) 혁신적
2 ② **3** ② **4** ④
5 ① **6** 지윤 **7** ④
8 ①

1 (1)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2) 청천벽력: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이르는 말. (3) 혁신적: 묵은 풍속,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

2 '인위적'과 '자연적'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낱말로 짝 지어졌습니다. '알다'와 '모르다'는 뜻이 반대인 낱말입니다.

3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 '다르다'를 씁니다.

4 ④ '약속하다'는 [약쏘카다]라고 발음해야 알맞습니다.

5 보기의 '찍다'는 '정한 대상에게 표를 던지다.'라는 뜻이며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①의 '찍다'입니다.

6 '시치미를 떼다'는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라는 뜻입니다.

7 '일회용품'은 '한 번만 쓰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물건 품(品)' 자가 쓰였습니다.

8 '호숫가'로 써야 알맞은 낱말입니다.

6주차

정답과 해설 12쪽

1 ② **2** ① **3** ③
4 ② **5** ④ **6** 좋다
7 ② **8** ①

1 빈칸에는 '거듭' 또는 '겹쳐'의 뜻을 더해 주는 말인 '덧-'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2 배에 새겨 칼을 구한다는 말인 '각주구검'의 뜻입니다.

3 '대가'는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③은 '자본'의 뜻입니다.

4 '뱃전'은 '배'와 전'을 합해서 만든 복합어입니다.

5 ① '리자'가 아닌 '이자'입니다. ②에서 '친구'는 높임을 나타내는 대상이 아니므로 '친구가'로 쓰고, ③에서는 '않' 대신 '안'을 써야 합니다.

6 세 낱말에 공통으로 쓰인 '선(善)'의 뜻은 '좋다'입니다. 빈칸에는 '좋게'가 들어가고, 기본형인 '좋다'를 답으로 씁니다.

7 '지속되다'는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다.'라는 뜻입니다.

8 '그날'은 하나의 낱말이므로 붙여 쓰고,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해 주는 말인 '-여'는 '천'과 붙여 씁니다.

7주차

정답과 해설 14쪽

1 ③ **2** ④ **3** ②
4 침 **5** ③ **6** ②
7 ④ **8** ①

1 ①은 '능청스럽게' 또는 '천연덕스레', ②는 '간신'이 들어가야 알맞습니다. ④는 '평탄하다'의 뜻과 반대되는 문장입니다.

2 보기의 낱말은 뜻이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인품'과 '사람됨'은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3 '바구니'는 단일어이고, '돌무더기'는 '돌'과 '무더기'를 합해서 만든 낱말입니다. '쥐어박다'는 '쥐다'와 '박다'를 합해서 만든 말이므로 '쥐어 + 박다'로 나누는 것이 알맞습니다.

4 '침 발라 놓다', '침을 흘리다', '침이 마르다'와 같이 쓰입니다.

5 '중요'에 쓰인 '요'는 '要(중요할 요)'입니다. ①은 '반드시 필', ②는 '어찌 하', ④는 '무거울 중' 자입니다.

6 ㉠은 '주의', ㉡은 '되어서도' 또는 '돼서도', ㉢은 '제대로'로 고쳐 써야 합니다.

7 ①, ②, ③은 발음할 때 'ㅎ' 받침이 생략됩니다. ④는 받침 'ㅎ'이 'ㄱ'과 만나 'ㅋ'으로 소리 납니다.

8 ②는 '엎친 데', ③은 '도마 위', ④는 '정 맞는다더니'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8주차

정답과 해설 16쪽

1 ② **2** ① **3** ①
4 ② **5** ③ **6** ③
7 ④ **8** ②

1 '외면하다'와 비슷한 뜻의 관용어는 '고개를 돌리다'입니다.

2 약속, 선약, 약혼에 쓰인 한자 '약(約)'은 '맺다'라는 뜻입니다.

3 ②, ③, ④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4 ①은 '잤기 때문에', ③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④는 '모른 채'로 띄어 써야 합니다.

5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뜻하는 '추세'가 들어가야 합니다.

6 ①, ②, ④는 각각 '마음 + -껏', '바다 + 속', '대왕 + 판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③ '말미잘'은 나눌 수 없는 단일어입니다.

7 ① [무니] ② [침냑] ③ [무작쩡] ④ [하뮤되다]

8 ① 운동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③ 날마다 만나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므로 '데면데면하다'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④ 주장이 맞아떨어지면 회의를 끝낼 수 있으므로 어색한 문장입니다.